

◇기관지 성형술 41례 보고 [합병증을 중심으로]

김시훈, 조건현, 왕영필, 박문섭, 김세화

가톨릭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기관지 성형술은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들 뿐 아니라 정상 범위의 폐기능 환자들에서 수술후 폐기능 보존에 따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추천되는 술식이다. 그러나 그 적응증, 수술계획에 따른 수술결과가 다양하여 본 저자들은 기관지 성형술의 합병증을 중심으로 임상고찰하여 이의 예방 및 처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.

방법 : 1993년 4 월부터 1998년 6 월 까지 본원에서 시행된 기관지 성형술 환자 41 례 [남자 24 명, 여자 17 명, 19 세에서 71 세의 연령층] 에서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을 고찰한다.

결과 : 전체 41 례 중, 1. 기관지 문합부 재협착 : 2례 [기관지내 이물에 의한 협착 1례, 단단문합후 협착 1례에서 발생하여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청진상 천명음이 있으나 호흡곤란은 없었다.] 2. 무기폐 : 1 례 [결핵성 좌측 주기관지 협착으로 침포확장성형술을 받은 경우였으며, 수술후 3 개월에 침포가 고정되면서 호전되었다.] 3. 회귀후두신경 손상 : 1 례 [기관지 선종으로 좌측 주기관지 구역절제후 단단문합한 경우였으며, 음성변화가 있었다.] 4. 농흉 : 1 례 [편평세포암으로 좌상엽수상절제술후 3 주째 발생하여 폐쇄성 흉강삽관술 및 흉강세척으로 치유되었다.] 5. 문합부 육아종 : 1 례 [편평세포암으로 우상엽수상절제술후 기관지 내시경상 발견되었다.] 6. 문합부에서 악성종양 재발 : 2 례 [1 례는 수술후 14 개월에 completion pneumonectomy 시행하고 다시 농흉 발생으로 개방성 흉강창 상태에 있으며, 1 례는 수술후 9 개월에 발견되어 brachytherapy 중에 각혈로 사망하였다.] 7. 문합부 파열 : 1 례 [편평세포암으로 우측 수상전폐절제술 8 병일째 갑작스런 문합부 파열로 사망하였다.] 8. 문합부전 : 1 례 [문합부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작 없이 4 cm 이상의 기관지가 절제되는 기관지성형술에서 발생하였다.]

결론 : 이상과 같은 수술결과로 주로 문합부에 국한된 합병증외에 적은 예 [2 례] 에서 흉강내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, 주로 문합부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보면 수술시 술기적 숙련과 정확한 병소 절제 및 적절한 봉합, 수술후 육아종 증식 및 협착을 예방하기 위한 적합한 봉합사 선택 및 약물요법 병행등을 고려해야 한다.

책임저자: 조건현 (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흉부외과)
 발표자: 김시훈 (가톨릭의과대학 흉부외과)